



파나마, 보안카메라 경쟁력 아이템

파나마 내수시장 및 콜론자유무역지대는 보안카메라가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안카메라가 파나마 시장에 도입된 지는 꽤 됐으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구매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보안 시스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나타난 것인데, 출시된 제품은 범죄 방지, 중요 서류 및 물품 도난 방지, 출입 관리 등을 위해 정부기관, 민간기업, 병원, 은행, 가정 등에서 사용된다. 보안카메라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이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는 파나마 시장에는 보안카메라의 수입, 도매, 유통, 소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의 취급 품목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로부터 수입해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수입제품들 간의 경쟁력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파나마운하관리청(www.pancanal.com), 수도 및 하수관리청(www.idaan.gob.pa) 등의 공공 기관에서는 여러 보안 장비를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관련 딜러들의 입찰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세르비아, 인터넷 관련 산업 전망 밝아

세르비아의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인터넷 사용자가 내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 최근 세르비아 국영통신사인 Telekom Srbij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ADSL가입자가 약 1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만명 정도가 신규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ADSL 보급지역은 수도 베오그라드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가능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Telekom Srbija는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이번달 내에 포털사이트를 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전화모뎀 접속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느린 속도와 전송 용량의 제한 때문에 사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르비아에서의 인터넷 기술과 관련 산업이 크게 대두될 전망이다.

오만, 의료용 안마기 시장 수요 급증

오만은 최근 웰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보건정책을 비롯해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안마기 시장의 수요가 급증세를 타고 있다.

오만은 고유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가 최고 호황국면에 이르러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 건강이나 외모,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또 많은 노동자들이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건강센터나 헬스클럽을 찾고 있으며, 기업 차원의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건강센터나 호텔, 리조트, 스파시설, 안마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의료용 안마기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또 오만의 관광산업은 물론 민간 병원과 보건소에 정부가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의료사업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오만의 안마기 시장은 2001년만 해도 30~50만불에 불과해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60~100만불 수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되어, 앞으로 안마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뉴스출처 : KOTRA

| 새 | 책 | 안 | 내 |

기업 최후의 경쟁력 『일터문화』



일터 안에서 직장인들 대부분은 우리의 일터가 좀 더 즐거웠으면, 신바람 났으면, 근무환경이 좋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 반면 기업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등 능력을 요구한다. 이 책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신뢰가 바탕이 된 일터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 두 관계의 기대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이 새로운 각도로 자신의 일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본문에서는 현존하는 일터문화를 그린 존(Zone), 그레이 존 I, 그레이 존 II, 블랙 존으로 나누었다. 그린 존은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과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조직원에게 이해되면서 기업은 물론 직원도 성장하는 일터문화이고, 어두운 색의 존일수록 일하기 좋은 일터와 거리가 멀어진다. 그린 존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포춘 100대 기업과 우리나라 일터문화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일터문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성과가 올라갈까? 어떻게 일터문화를 변화시킬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거름 펴냄)